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심은지	소속(학부/과)	고분자공학 전공
파견 학기	2019학년도 1학기		파견 국가	프랑스
파견 대학	레오나르도 다빈치 대학교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거창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다. 친구와 첫 배낭여행 후 유럽에서 살아본다면 이곳에서 공부해본다면 어떤 기분일지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증이 생겼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환학생 모집을 발견하였다. 그 중 굳이 프랑스 파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 역시 호기심이 컸다. 그동안 금오공과대학교는 시내와는 거리가 멀며 조용한 마을 같은 분위기를 가졌다. 그래서 변화가의 대학을 다니는 건 어떤 것일까 막연한 동경도 있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파리'하면 떠오르는 도시의 매력에 끌려 선택하게 되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프랑스는 특히 서류 절차가 아주 느리고 문서를 많이 요구하는 나라이다. 먼저 비자 발급 시 아주 주의해야 한다. 이 학교는 1월부터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10월 말에 학교 허가서가 나온 후 바로 비자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학생 비자를 받는 날짜가 느려진다. 최소 2주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학교에 합격을 하면 학교 측에 메일로 입학 허가서를 달라고 재촉하고 받은 후에 최대한 빨리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항공권 구입은 입학허가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저렴하다. 비록 정확한 비자 발급 날짜를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 대사관 측에서 출국 날짜 전에 비자를 주는 편이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언제 비자가 만료되는지 확실하지 않아 편도로 끊었다. 하지만 다른 학교의 몇몇 교환학생은 왕복으로 끊기도 했다.

수강신청은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주셨다. 21학점 이상 선택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학교는 20학점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가서 담당자에게 수업 1개를 취소할 수 있었다.

우리학교의 최대 단점은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다. 집을 직접 구하는 방법 혹은 학교 측에서 믿을 만한 집을 소개해줘 그 집을 계약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다. 다만 학교 측의 소개에 의한 집은 가격이 비싸다.(1달에 120만원 정도?) 하지만 '알로까시옹'이라는 프랑스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집세를 많이 할인해줘 그나마 낫다. 나는 집을 직접 구했는데 '프랑스존'에서 구했다. 친구와 둘이 사는 집으로 1인당 70만원 정도였다. 프랑스에 도착해서 내가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으려면 또 서류를 보내고 마지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거주증명서"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이 거주증명서를 써주는 집을 구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자. 그리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 번 확인하고 믿을만한 집주인인지 확신한 후에 보증금을 보내야 한다. 집 위치는 꼭 학교 근처가 아니더라도 프랑스의 지하철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통학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심지어 나는 40-50분 거리의 집에 살았는데 별 문제는 없었다.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길을 지나다니는 평범한 프랑스인들은 대부분 영어를 하지 못하고 불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불어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들었는데 불어는 참 매력적인 언어였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공부할 생각이다. 그리고 영어는 막상 회화가 금방금방 늘지는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막 말하는 자신감은 늘었다. 그리고 확실히 영어에 대한 감각은 늘 수 있었다. 하지만 가기 전에 회화 위주의 공부를 하고 가면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학교 주변에는 쇼핑몰이 크게 있는데 그곳에 대형 마트인 'Auchan'에는 삼겹살도 팔고 쌀도 저렴한 가격에 판다. 한 마디로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곳이다. 그리고 지하철을 탈 때는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한다. 방심한 순간 채간다. 실제로 내 주위의 교환학생 몇몇은 당했다. 그래도 노란 조끼 시위는 거의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 토요일에 상젤리제 거리 근처는 아예 시위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니 그날만 조심하고 그 근처에 가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주의사항을 말하다 보면 파리는 참 치안도 안 좋고 언어도 안 통하는 곳이겠구나 생각하는데 역시 낭만의 도시이다.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현지 분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빵을 사 먹은 기억 그리고 에펠탑 앞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샴페인을 터뜨린 기억들은 내게는 모든 걸 잊을 만큼 소중한 즐거운 추억이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대학은 금오공대 학생들이 거의 가지 않은 곳인데 앞으로 더 많아지길 바란다.